

보도 일시	2021. 12. 9.(목) 16:30	배포 일시	2021. 12. 9.(목) 16:30
담당 부서	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	책임자	과장 임성환 (044-203-2861)
		담당자	사무관 권용덕 (044-203-2870)

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호텔 방역 현장 점검

- 12. 9. 문체부 제2차관, 방역 강화로 어려움 겪는 호텔업계 애로사항 청취 -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황희, 이하 문체부) 오영우 제2차관은 12월 9일(목), 서울에 있는 호텔 ‘위커힐 호텔앤리조트’를 방문해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살폈다.

오영우 차관은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 추가 후속 조치에 따라, 호텔 내 식당 등의 ‘방역패스’ 적용, 사적 모임 인원 제한(수도권 6인)에 따른 시설 이용 제한 등을 중심으로 호텔의 방역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. 특히 작년 연말연시에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점을 고려해 호텔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.

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. 호텔업계와 현장 관계자들은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연장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호텔업을 회복하고 관광업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요청했다.

한국호텔업협회 유용종 회장은 “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업계가 어렵지만,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. 정부는 업계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고민해주길 바란다.”라며 업계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.

오 차관은 “연말연시에는 호텔 등 숙박시설의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 정부가 이번 달을 ‘특별방역점검기간’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줄

것을 당부드린다.”라며, “호텔업 등 관광업계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※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

